



2021. 10. 21 (목)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메리츠 자산배분 전략 점검: 주력 모델 MVAA, MDAA 성과 우수

오늘의 차트

영국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의 배경과 시사점

칼럼의 재해석

주류업계의 향후 성장 동력은?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퀸트
Analyst 강봉주
02. 6454-4903
bj.kang@meritz.co.kr

메리츠 자산배분 전략 점검: 연초 이후 MVAA 8.2%, MDAA 3.5% 수익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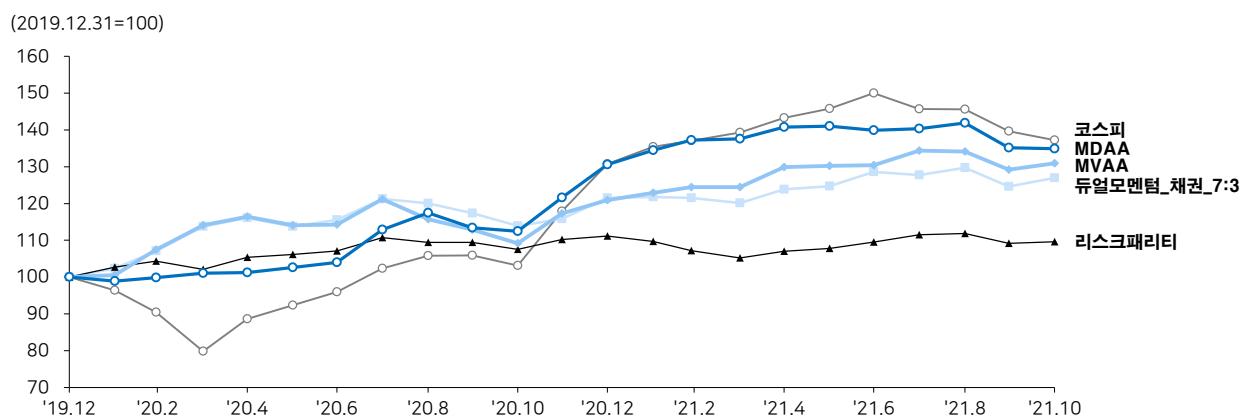
- ✓ 2020년 5월 이후 제시한 4개 자산배분 모델 성과 점검, 핵심 모델인 MVAA, MDAA 2개 모델 2021년 연초 이후 8.2%, 3.5% 수익률을 기록하여 양호한 성과 지속
- ✓ 하반기에 신흥국 중심의 주가 약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반등하여 상반기에 이어 채권 수익률 부진, 미국 리츠(부동산)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양호(하반기 5.7%)
- ✓ MVAA, MDAA 전략 모두 하반기 주식 비중 감소(10월 기준 MVAA 37%, MDAA 0%)

하반기 신흥국 주식, 채권, 금 수익률 부진, 미국 리츠 상대적 양호

필자는 2020년 5월 'ETF와 해외 자산배분 전성시대, MVAA 자산배분 전략' 자료에서 16개 핵심 자산군을 선정하고 총 3개의 자산배분 전략(듀얼 모멘텀, 리스크 패리티, MVAA)을 설명했다. 이후 2020년 11월 25일에는 '금리 변동에 대비한 자산배분 전략' 자료에서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단기채권을 활용한 MDAA (Meritz Defensive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 전략을 추가로 제시했다.

본 자료에서는 해당 모델들의 최근 성과를 점검한다. 참고로 본 자료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2020년 5월, 11월 보고서를 먼저 읽을 것을 권한다. 4개 모델의 2020년 성과는 10~28%로 상당히 우수했으며, 핵심 모델인 MVAA, MDAA 모델은 올해 연초 이후 각각 8.2%, 3.5%의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그림1 MDAA를 포함한 메리츠 퀸트 4개 자산 배분 모델의 2020년 이후 투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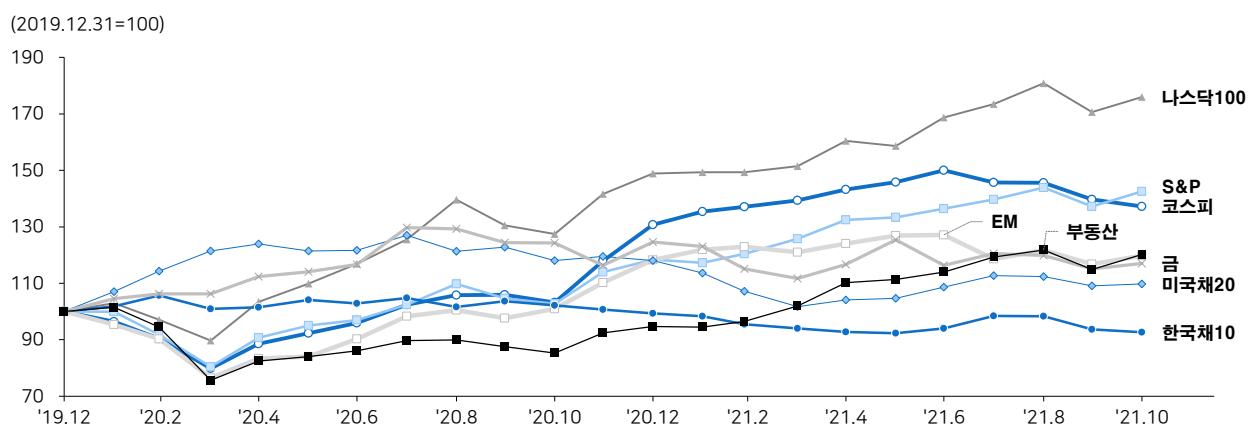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하반기 신흥국 위주의
주가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로
채권 금리 반등(채권 가격 하락)
금 수익률 부진, 미국 리츠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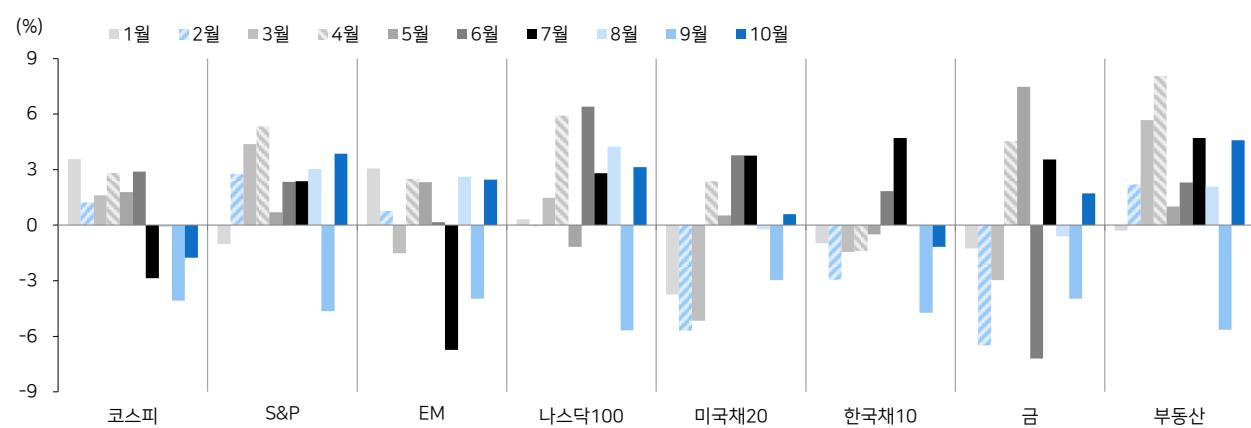
우선 2020년 이후 8개 주요 자산군의 성과를 점검하자. 주식은 하반기에 신흥국 중심으로 하락 반전했다. 2022년 이익 전망치 하향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및 금리 상향 우려가 주요 원인이다. 채권은 하반기에 금리가 다시 반등하며 올해의 약세 흐름이 지속됐다. 금 가격도 작년의 25% 상승 이후 올해는 7% 정도의 하락 흐름이다. 작년에 부진했던 미국 리츠(부동산)는 하반기에 5.7% 추가 상승하며 연초 이후 25%나 상승했다. 이런 큰 폭의 자산군 수익률 변화를 볼 때 단일 자산 투자보다 자산배분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림2 2020년 이후 8개 주요 자산군 월별 성과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21년 이후 8개 주요 자산군별 성과 : 월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메리츠 자산배분 MVAA, MDAA 모델 성과 우수_연초 이후 8.2%, 3.5%

2021년 성과 듀얼모멘텀 4.5%

리스크 패리티 -1.3%

MVAA 8.2%, MDAA 3.5%

필자의 4개 모델 중 리스크 패리티 모델은 자산별 노출 변동성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가장 보수적인 모델이다. 듀얼 모멘텀 전략은 16개 자산군 중에서 절대 수익률과 상대 수익률이 가장 강한 4개의 자산에 채권과 함께 투자하는 전략이다. MVAA 모델은 듀얼 모멘텀 전략의 모멘텀 추종 성격과 위험 관리 성격 모두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MDAA는 MVAA의 안전자산 부분을 단기채로 변경하고 주식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의 모델로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전략이다.

표1 4개 자산 배분 전략의 월별 수익률

(%)	듀얼 모멘텀	리스크 패리티	MVAA	MDAA	코스피
1Q20	13.8	2.1	14.1	1.1	(20.2)
2Q20	1.6	4.9	0.1	2.9	20.2
3Q20	1.6	2.2	(1.2)	9.1	10.4
4Q20	3.5	1.5	7.1	15.1	23.4
'21.1	0.2	(1.3)	1.6	3.0	3.6
'21.2	(0.3)	(2.3)	1.3	2.0	1.2
'21.3	(1.1)	(1.8)	0.0	0.3	1.6
'21.4	3.0	1.7	4.4	2.3	2.8
'21.5	0.7	0.7	0.3	0.2	1.8
'21.6	3.1	1.6	0.1	(0.8)	2.9
'21.7	(0.7)	1.8	3.1	0.3	(2.9)
'21.8	1.6	0.3	(0.2)	1.1	(0.1)
'21.9	(3.9)	(2.4)	(3.7)	(4.7)	(4.1)
'21.10	1.8	0.4	1.3	(0.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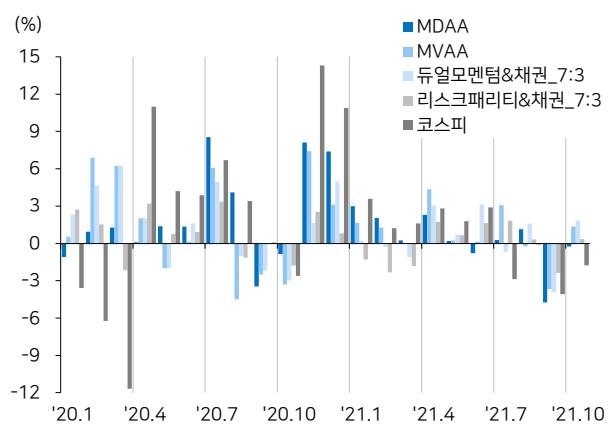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4개 자산 배분 전략의 2020년 이후 누적 성과 지수

('19.12.31=100)	듀얼 모멘텀	리스크 패리티	MVAA	MDAA	코스피
'19.12	100.0	100.0	100.0	100.0	100.0
1Q20	113.8	102.1	114.1	101.1	79.8
2Q20	115.6	107.1	114.3	104.0	95.9
3Q20	117.4	109.5	112.9	113.4	105.9
4Q20	121.6	111.1	120.9	130.6	130.8
'21.1	121.8	109.7	122.9	134.5	135.4
'21.2	121.5	107.2	124.4	137.2	137.1
'21.3	120.1	105.2	124.5	137.6	139.3
'21.4	123.8	107.0	129.9	140.8	143.2
'21.5	124.7	107.8	130.2	141.0	145.8
'21.6	128.6	109.5	130.4	139.9	150.0
'21.7	127.7	111.5	134.4	140.3	145.7
'21.8	129.7	111.9	134.1	141.9	145.6
'21.9	124.6	109.2	129.2	135.2	139.6
'21.10	126.9	109.6	130.9	134.9	1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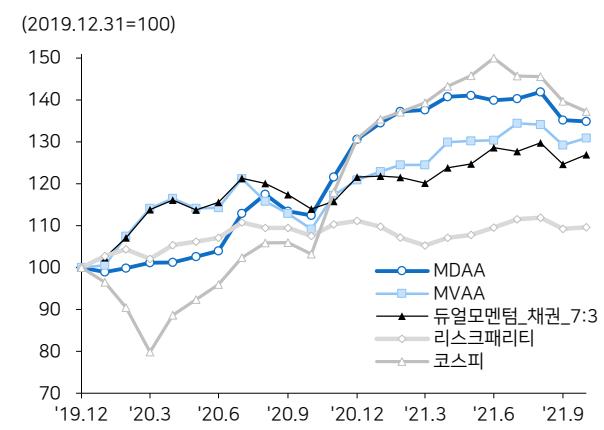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4개 자산 배분 전략의 월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4개 자산 배분 전략의 2020년 이후 누적 지수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듀얼 모멘텀 연초 이후 수익률 4.5%, 주식 비중 53%로 평균 상회

듀얼 모멘텀 전략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산군 4개와 20년 만기 미국채의 성과를 비교해서 모멘텀 상위 자산에 투자한다. 역시 자세한 설명은 2020년 5월 보고서로 대체한다. 해당 모델은 작년 3~5월에는 주식 비중을 0%까지 줄인 이후, 6월부터는 나스닥100을 다시 17.5% 편입했다. 12월 이후로는 주식 비중을 다시 크게 높였고, 올해 내내 주식 비중을 53~70% 정도로 높게 확대 중이다.

2020년 3~5월 주식 보유 0%

6월 이후 나스닥100 보유

12월 이후 주식 비중 크게 확대

2021년 10월 현재 주식비중

53%로 과거 평균(36%)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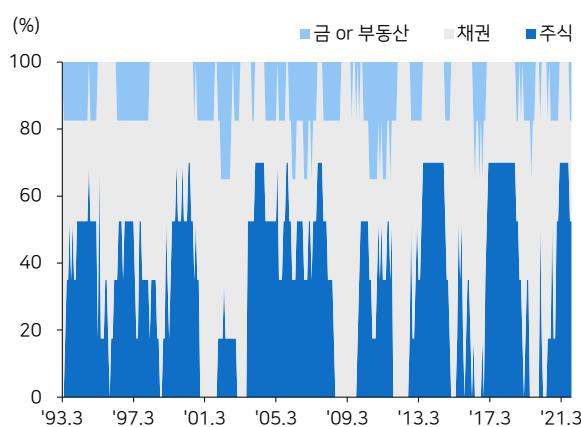
결국 2020년 성과 호조에는 상반기 중시 급락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0%까지 줄인 점이 유효했다. 이후 하반기에 주식 비중 확대가 조금 더뎠지만 12월 이후 크게 확대한 점, 2021년 채권 가격 급락 국면에서 채권 비중을 줄인 점이 유효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주식 수익률 부진으로 -1.2% 성과를 기록 중이다.

표3 듀얼모멘텀&채권_7:3 전략 자산 배분 내역

날짜	듀얼모멘텀 70%				채권 30%
	17.5%	17.5%	17.5%	17.5%	
'20.1	나스닥100	S&P	부동산	러셀2000	미국채20
'20.2	나스닥100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20.3 ~ 20.5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20.6	나스닥100	금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20.7	나스닥100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20.8	나스닥100	금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20.9	나스닥100	금	S&P	코스피	미국채20
'20.10~'20.11	나스닥100	금	미국채20	미국채20	미국채20
'20.12	나스닥100	코스피	금	EM	미국채20
'21.1	나스닥100	코스피	금	러셀2000	미국채20
'21.2~'21.3	나스닥100	코스피	러셀2000	EM	미국채20
'21.4~'21.5	러셀2000	코스피	나스닥100	EM	미국채20
'21.6	러셀2000	코스피	EM	나스닥100	미국채20
'21.7	러셀2000	코스피	나스닥100	EM	미국채20
'21.8	러셀2000	코스피	나스닥100	S&P	미국채20
'21.9~'21.10	러셀2000	코스피	부동산	S&P	미국채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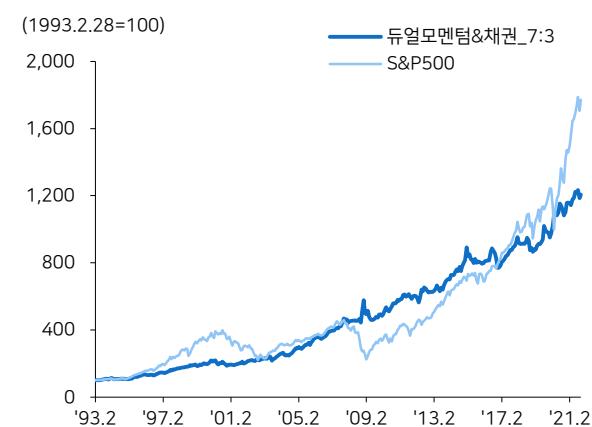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듀얼모멘텀&채권_7:3 전략의 장기 자산 배분 내역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듀얼모멘텀&채권_7:3 전략, S&P500 장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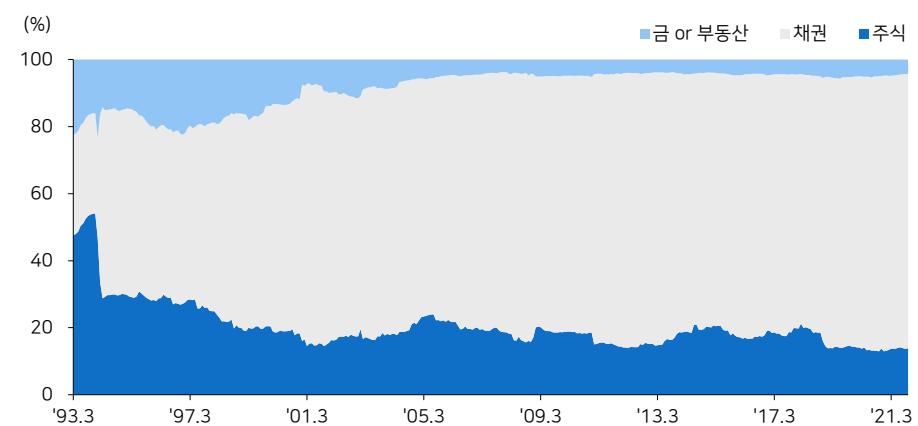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리스크 패리티&채권_7:3: 높은 채권 비중으로 연초 이후 성과 -1.3%

리스크 패리티 & 채권 전략은
10월 주식 비중 14%로 과거 평균
20% 대비 낮은 주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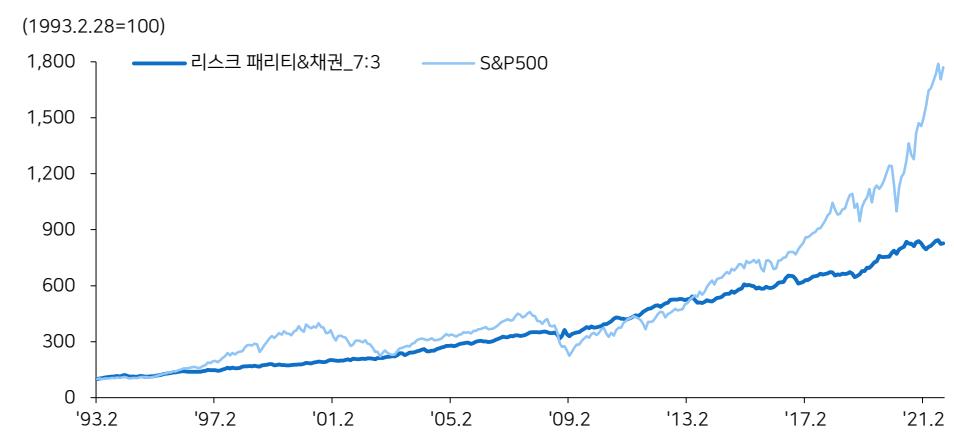
리스크 패리티 전략은 3개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자산배분 전략이다. 사실상 뉴얼모멘텀, MVAA 전략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조군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자산군 투자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위험 조정 수익률' 특성을 나타내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해당 전략은 모델의 구조상 채권 비중을 70~80%로 높게 유지하게 되며 올해 연초 이후 -1.3%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그림8 리스크 패리티&채권_7:3 전략의 장기 자산 배분 내역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리스크 패리티&채권_7:3 전략, S&P500 장기 성과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MVAA 전략 연초 이후 수익률 8.2%, 2020년 2~6월 주식 비중 0%,
2020년 9월 이후 주식 비중 증가, 2021년 10월은 주식 38%, 채권 50%

MVAA 전략은 자산별 모멘텀
추종을 하면서도 듀얼 모멘텀
전략에 비해 채권 비중이 높은
보수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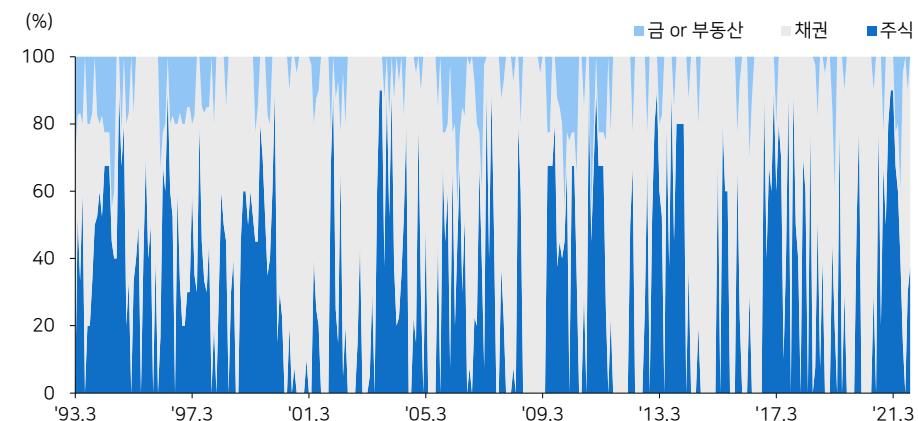
MVAA(Meritz Vigilant Asset Allocation) 전략은 듀얼 모멘텀 전략의 장점(모멘텀 자산 추종)을 따르되, 보다 보수적인 전략이다. 보수적인 이유는 전체 기준 자산군(필자의 경우 16개) 내에서 안전 자산(20년 만기 미국채)보다 모멘텀이 강한 자산의 수가 일정 수치(6개) 이하이면 안전 자산으로만 투자하기 때문이다. 작년 상반기 선제적인 주식 비중 축소와 9월 이후 주식 비중 확대로 성과가 우수했다.

표4 MVAA 전략 자산 배분 내역

2020년	Top4 모멘텀 상위 자산					채권	2021년	Top4 모멘텀 상위 자산					채권
1월	EM	나스닥100	S&P	AC_exUS	미국채20	20%	1월	코스피	러셀2000	EM	나스닥100	미국채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6월	n/a	n/a	n/a	n/a	미국채20	0%	2월	러셀2000	코스피	신흥국	나스닥100	미국채20	
	0%	0%	0%	0%	100%	0%		23%	23%	23%	23%	10%	
7월	나스닥100	EM	금	코스피	미국채20	10%	3월	러셀2000	코스피	신흥국	AC_exUS	미국채20	
	10%	10%	10%	10%	60%	10%		23%	23%	23%	23%	10%	
8월	n/a	n/a	n/a	n/a	미국채20	0%	4월	러셀2000	코스피	S&P	부동산	미국채20	
	0%	0%	0%	0%	100%	0%		23%	23%	23%	23%	10%	
9월	나스닥100	S&P	코스피	EM	미국채20	20%	5월	부동산	러셀2000	S&P	나스닥100	미국채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월	코스피	나스닥100	EM	S&P	미국채20	5%	6월	코스피	금	부동산	EAFFE	미국채20	
	5%	5%	5%	5%	80%	5%		20%	20%	20%	20%	20%	
11월	EM	러셀2000	나스닥100	금	미국채20	23%	7월	나스닥100	코스피	부동산	러셀2000	미국채20	
	23%	23%	23%	23%	10%	23%		5%	5%	5%	5%	80%	
12월	러셀2000	코스피	EAFFE	AC_ex.US	미국채20	13%	8월	n/a	n/a	n/a	n/a	미국채20	
	13%	13%	13%	13%	50%	13%		0%	0%	0%	0%	100%	
							9월	나스닥100	부동산	S&P	러셀2000	미국채20	
								10%	10%	10%	10%	60%	
							10월	미국하이일드	EAFFE	S&P	러셀2000	미국채20	
								13%	13%	13%	13%	50%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MVAA 전략 자산 배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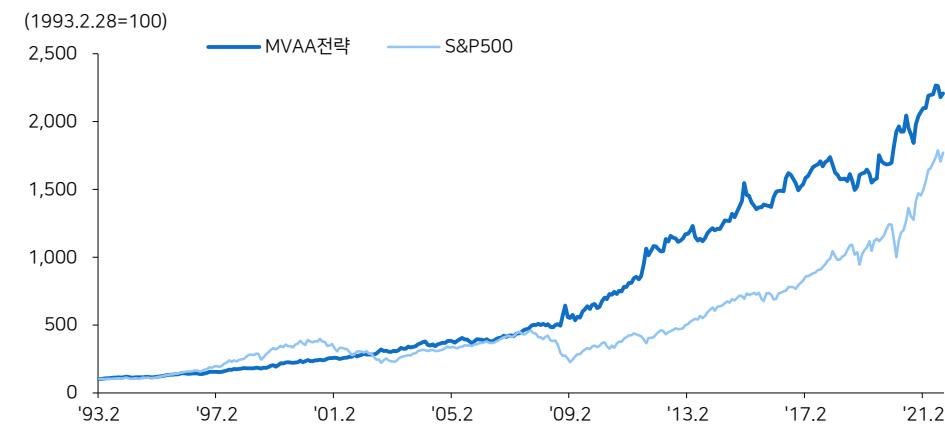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0년 이후 자산별 높은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MVAA 전략의
자산별 비중 배분 효과 우수
올해 상반기 주식 비중 확대 및
하반기 주식 비중 축소로 양호한
성과 유지(연초 이후 8.2%)

결국 MVAA 전략의 보수적인 특성 덕분에 2020년 상반기의 코로나 증시 급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게다가, 자산 비중에 대한 타이밍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다.
2020년 4월의 증시 반등보다는 느렸지만 9월 이후 주식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
며 증시 상승 효과를 누렸다. 이후 2021년에는 채권 비중을 10~20%로 크게 낮
춤으로써 금리 반등으로 인한 채권 가격 하락을 상당 부분 회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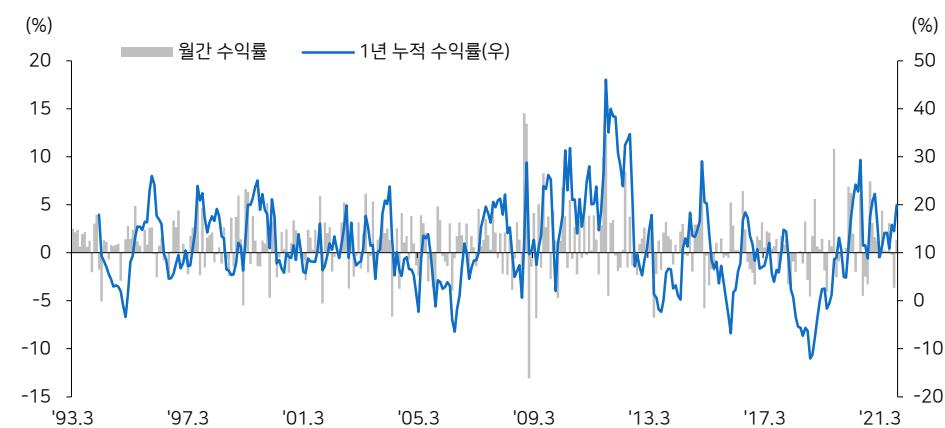
하반기에 주식 비중을 평균 20% 이하로 낮게 배분한 점도 성과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편, 최근 10월에는 MVAA 모델에서 주식 비중을 과거 평균(33%) 보
다는 소폭 높은 38%로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 주가 하락 위험보다 금리 추가 상
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11 MVAA 전략, S&P500 장기 투자 성과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MVAA 전략 월별 및 12개월 누적 수익률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MDAA 전략 연초 이후 수익률 3.5%, 주식 비중 2020년 5월부터 증가하여 2020년 수익률 28%, 최근 10월 주식 비중 0%, 단기채 100%

MDAA 전략은 금리 상승기에 성과 방어 능력이 우수하며 주식 상승기에 성과가 강한 특징

MDAA 모델 2020년 성과 28%
2021년 성과 3.5% 기록중
최근 10월에는 주식 비중 0%로
주식 자산 회피 성향 강화

MDAA(Meritz Defensive Asset Allocation) 전략은 2020년 11월 보고서에서 추가로 제시한 전략이다. Defensive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금리 상승기에 채권의 가격 하락 위험을 방어하는 특징 때문이다. MDAA 전략은 신흥국 주식, 신흥국 채권 지수 2가지의 모멘텀 평가를 통해 안전자산 비중을 정한다. 기본 안전자산으로 20년 미국채를 활용하는 MVAA와 달리 1~3년 만기 미국채를 배분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MDAA 모델은 작년 성과가 28%로 4개 모델 중 가장 우수했다. 작년 3,4월 주식 급락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0%로 줄이고, 5월 이후에는 주식 비중을 빠르게 늘린 점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주식 비중이 높은 모델의 기본 성격상 올해 상반기에는 성과가 7%로 우수했으나 하반기에는 중시 하락 영향으로 상반기 성과가 3%대로 감소했다. 결국, 채권 하락 리스크 방어는 됐으나 주식에서 피해를 본 셈이다. 최근 10월에는 주식 비중 0%, 단기채 100%로 배분 중이다.

표5 MDAA 전략 자산 배분 내역

2020년	Top4 모멘텀 상위 자산				채권	2021년	Top4 모멘텀 상위 자산				채권	
1월	EM	나스닥100	S&P	AC_exUS	미국채1~3년 25% 25% 25% 25%	0%	1월	코스피	러셀2000	EM	나스닥100 25% 25% 25% 25%	미국채1~3년 0%
2월	나스닥100	미국채20	금	미국_투자등급	미국채1~3년 13% 13% 13% 13%	50%	2월	러셀2000	코스피	EM	나스닥100 25% 25% 25% 25%	미국채1~3년 0%
3월	미국채20	금	미국채10	한국채10	미국채1~3년 13% 13% 13% 13%	50%	3월	러셀2000	코스피	EM	AC_exUS 13% 13% 13% 13%	미국채1~3년 50%
4월	n/a	n/a	n/a	n/a	미국채1~3년 0% 0% 0% 0%	100%	4월	러셀2000	코스피	S&P	부동산 13% 13% 13% 13%	미국채1~3년 50%
5월	나스닥100	미국채20	금	S&P	미국채1~3년 13% 13% 13% 13%	50%	5월	부동산	러셀2000	S&P	나스닥100 25% 25% 25% 25%	미국채1~3년 0%
6월	나스닥100	금	S&P	미국채20	미국채1~3년 13% 13% 13% 13%	50%	6월	코스피	금	부동산	EAFFE 25% 25% 25% 25%	미국채1~3년 0%
7월	나스닥100	EM	금	코스피	미국채1~3년 25% 25% 25% 25%	0%	7월	나스닥100	코스피	부동산	러셀2000 25% 25% 25% 25%	미국채1~3년 0%
8월	금	나스닥100	EM	코스피	미국채1~3년 25% 25% 25% 25%	0%	8월	부동산	나스닥100	S&P	한국채10 13% 13% 13% 13%	미국채1~3년 50%
9월	나스닥100	S&P	코스피	EM	미국채1~3년 25% 25% 25% 25%	0%	9월	나스닥100	부동산	S&P	러셀2000 25% 25% 25% 25%	미국채1~3년 0%
10월	코스피	나스닥100	EM	S&P	미국채1~3년 25% 25% 25% 25%	0%	10월	n/a	n/a	n/a	n/a 0% n/a n/a n/a	미국채1~3년 100%
11월	EM	러셀2000	나스닥100	금	미국채1~3년 25% 25% 25% 25%	0%						
12월	러셀2000	코스피	EAFFE	AC_exUS	미국채1~3년 25% 25% 25% 2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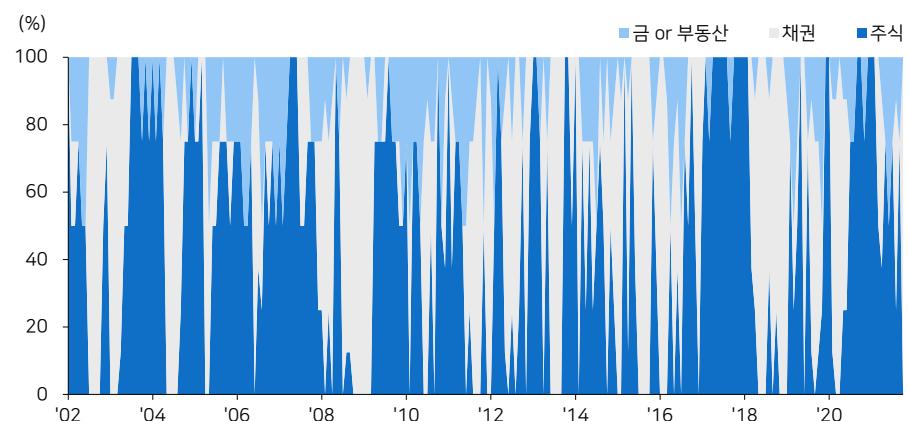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MVAA, MDAA 모델 성과 우수
올해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정교한
자산배분 전략 필요

결국 모든 국면마다 금융 자산의 등락을 맞추어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도 투자 과정 중에 분산투자 효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자산 배분 투자(주식, 채권, 금, 부동산)가 효과적이다. 현재에도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우려, 2022년 기업 이익 신뢰 저하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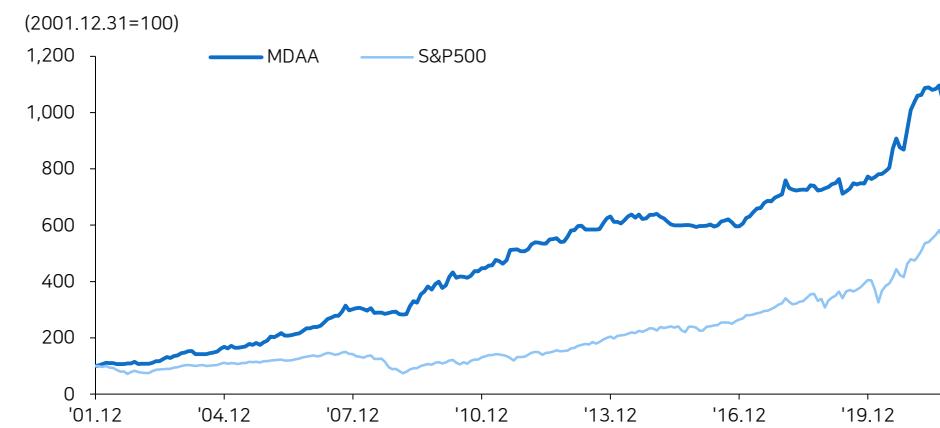
그런 점에서 필자는 주력 모델인 MVAA, MDAA를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할 것을 제안한다. 작년에 보고서에서 방법론을 설명한 이후 올해의 혼란스러운 국면에서도 두 모델의 성과가 안정적인 점이 긍정적이다. 향후에도 효과적인 자산 배분 방법론을 지속 제시할 예정이다.

그림13 MDAA 전략 자산 배분 내역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MDAA 전략, S&P500 장기 투자 성과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임제혁 연구원

영국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의 배경과 시사점



자료: Bloomberg, BLS, 영국통계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영란은행, 연내 금리인상 시사

영란은행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영국 채 단기금리가 급등했다. 선물시장 또한 2개월 전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에서 현재 11월 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11월 금리인상 과도하다는 평가 많아

금융시장에서는 영국의 11월 금리인상이 현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 물가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공급망 혼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7월 위드 코로나 이후 일일 신규확진자와 사망자수가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많다. 10월 도이치 뱅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5%가 영란은행이 정책 실수를 할 리스크가 크다고 응답했다. 영국채 금리 또한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며 커브는 플래트닝 되었다.

영란은행, 금리인상은 중장기 인플레 확대 리스크 대응 차원

영란은행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영란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공급측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나,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 또한 9월 FOMC 이후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영국과 다른 점은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anchoring) 있다는 점이다. 중장기 인플레이션 지표인 inflation swap 5y5y가 10년 평균 정도로 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PPI와 CPI의 괴리폭도 영국이 상대적으로 더 벌어져있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위험도 더 크다.

파월 연준 의장 또한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표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de-anchoring되며 금리 인상 기대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

칼럼의 재해석

김정욱 연구위원

주류업계의 향후 성장 동력은? (Financial Times)

최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펩 예약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주류 소비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 위주로 리오프닝이 재개되었고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변화된 음주 습관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류업계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업계 상황과 무관하게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 회사들은 2020년에 오히려 실적이 성장했는데, 술을 마시는 기회가 적어지고 가정 내에서만 음주문화를 즐기다 보니 비싼 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MZ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는 적극적으로 무알콜 제품들의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 무알콜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34% 성장이 예상되는데, 전체 주류 시장이 6%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 주류업체들에 게도 긍정적인 소식인데 무알콜 제품의 경우, 판매가격은 알코올 제품과 비슷하지만, 알코올 함량이 낮기 때문에 주류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류 특성상 저녁 시간 소비가 대부분인데, 무알콜 제품의 경우 아침이나 점심에도 가볍게 즐길 수 있어 하루 섭취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맛이 개선된다면 향후 뚜렷한 성장 제품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돌아온 맥주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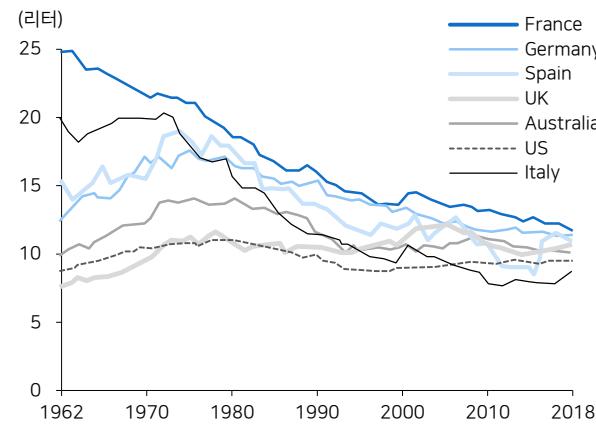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주류업계는 실적 회복 중

영국 펩 체인 Mitchells & Butlers의 8, 9월 매출액은 2019년 수준을 넘어섰으며 하이네켄의 경우 미국, 중동, 아프리카 지역 판매량은 2019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리오프닝이 재개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주류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영업환경이 정상화되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변화된 주류 음용 습관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가심비'는 주류업계에도 영향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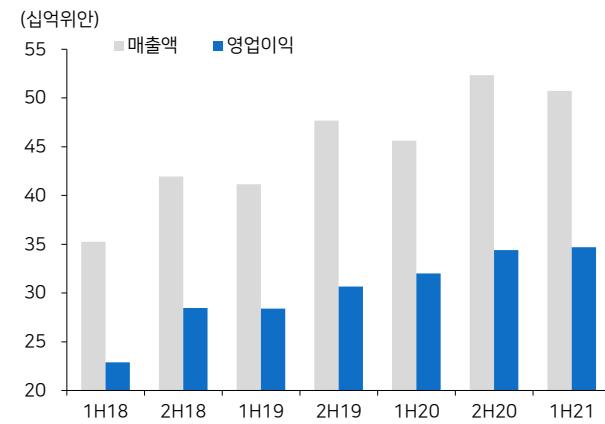
한편 프리미엄 주류 업체들은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2020년 실적 성장을 이끌어 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 채널용 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심비'(가격과 상관없이 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중요해졌고, 이는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Drink better, Not more'은 해외 주류업계의 주요 슬로건인데, 1인당 주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환경에서 ASP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을 추구하려는 업체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문구이다.

그림1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1인당 주류 소비량



자료: Financial Times, WTO,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귀주모태주 실적은 성장 지속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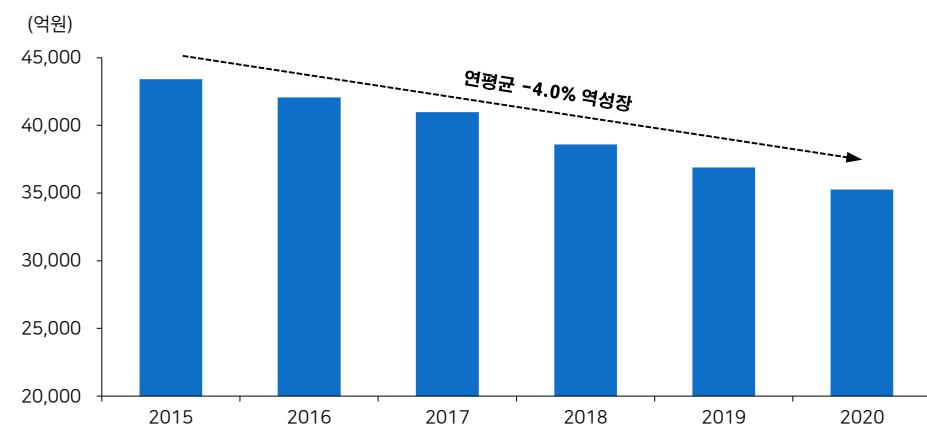
코로나 이전부터 맥주 출고금액은
연평균 3~4% 수준으로 감소

와인, 양주 등 고가 술에 대한
소비 증가, P의 성장이 중요

국내 시장도 해외 시장과 같은 흐름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맥주 출고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9년 기준 국내 맥주 출고액은 3조 6,882억원으로 2015년 대비 -15.0% 감소한 수치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며 주류의 주 소비층인 20~30대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워라밸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회식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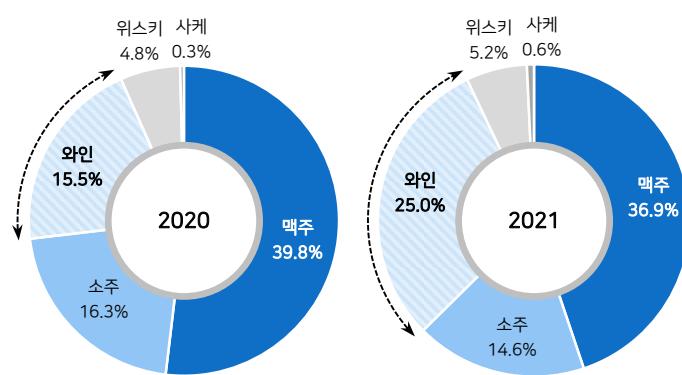
따라서 프리미엄 제품군의 매출 비중 확대는 국내 업계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다. 국내 업체의 경우 와인, 양주 등 ASP가 높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롯데칠성의 올해 상반기 와인 매출은 전년비 +54.3% 성장한 403억원을 기록하면서 주류사업부 전체 매출 대비 12.4%를 차지했다. 맥주 대비 평균적으로 ASP가 높은 와인 매출 비중 확대는 한정된 주류 소비 횟수에서 평균 판매 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3 코로나 이전부터 국내 맥주 출고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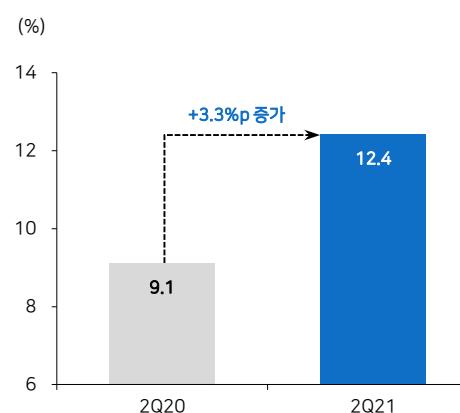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출고액 기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주요 유통업체 프리미엄 주류 전년비 매출 비중 확대



자료: 롯데마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롯데칠성 주류사업부 매출 대비 와인 매출 비중



자료: 롯데칠성,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무알콜, 저알콜 시장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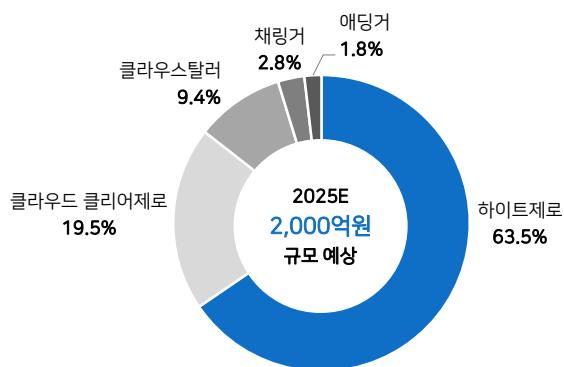
아침과 점심에 즐기는
무알콜 맥주

커피를 음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디카페인 시장이 확대되어 온 것처럼 무알콜 주류 시장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2025년 2,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 200억원 수준 대비 10배 가량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레귤러 맥주 시장규모가 연평균 3~4% 자연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2025년 기준 침투율은 7.1%정도로 추산된다. 2020년 기준, 독일 16%, 호주 21%의 무알콜 침투율을 고려 시, 2025년 이후로도 업사이드가 있다는 판단이다.

맛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극복해야 나갈 요소

이에 따라 국내 업계들도 무알콜 맥주 라인업 재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년 1분기 기준, 하이트진로의 '하이트제로 0.00'가 MS 63.5%정도로 가장 선두 업체로 나서고 있으며, 롯데칠성은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를 리뉴얼 한 제품을 최근에 출시했다. 다만 맛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여전히 주류업체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맛에 대한 거부감만 넘어선다면 향후 뚜렷한 성장 제품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림6 1Q20 기준 무알콜 맥주 시장 점유율



자료: 각 사 추정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1H21 '하이트제로 0.00' 매출 전년비 50% 이상 증가



자료: 하이트진로

원문: *As pubs pack out, drink companies worry about an abstemious youth*